

중국의 무인시스템 확산에 따른 농식품 수출시 착안사항

선진국에서는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무인 차, 무인 택시, 무인편의점 등 무인 시스템이 점차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에서 무인 매장 “amazon GO”를 선보인 이후 전세계적으로 무인편의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된 중국에서도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다양한 무인 시스템이 등장하거나 등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무인 시스템으로는 淘咖啡(타오 카페)를 들 수 있다. 2017.7.7일 선보인 알리바바의 무인카페 “淘咖啡(타오 카페)”는 출구를 통과하면 매장 내 카메라가 소비자의 동선과 동작을 인식해 어떤 상품을 가지고 나왔는지 인식하는 인공지능 편의점으로 제품 판매와 음식 및 음료 서비스 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무인시스템인 중국의 “빙고박스”는 24시간 전자동 스마트 편의점을 표방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5000개 까지 무인편의점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내 최대 식품사중 하나인 와하하(哇哈哈) 기업도 중국의 과학기술기업과 함께 향후 3년간 10만개의 무인 편의점 Takego(테이크고)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인편의점의 경우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일반 편의점에 20%에 불과하며, 상품 단가도 일반 편의점보다 20%에서 30%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무인 편의점은 구매 시간이 단 10초도 걸리

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 편의점과 무인 편의점을 비교 했을 때, 일반편의점도 중국에서 꽤 높은 순수익 (35%)을 내고 있지만, 무인편의점의 순수익은 35%에서 45%로 일반 편의점 보다도 높다.



중국에선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에 이어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 스마트 판매기기도 사무실내에 등장하고 있으며, 도시락, 주스, 스낵 자동 자판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무인화 시스템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내 총 2600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과일 판매 체인점 百果园(바이귀어위안)이 과일 스마트 판매기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 이 스마트 판매기는 손잡이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뒤, 상품을 골라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이귀위안은 현재 중국 베이징, 선전, 항저우 등 대도시 오피스 빌딩에 과일 스마트 판매기를 이미 설치한 상태 이다.

과일 스마트 판매기 뿐만 아니라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 每日优鲜(메이르유센) 또한 베이징의 오피스건물에 상온, 냉장, 냉동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자판기를 설치해 과일 뿐만 아니라 요거트, 과일, 스낵 등 다양한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 자판기 또한 손잡이에 달린 QR 코드를 스캔해 판매기 문을 열고, 자회사 결제 어플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포장식품, 음료 회사 天天果园(텐텐귀위안)은 시티 박스를 출시해 신선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시티 박스의 특이한 점은 위챗페이가 아닌 알리페이로 구매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로봇이 알아서 상품의 전자 테그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

무인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상품 도난, 손상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청두에서 스마트 신선식품 판매가 자주 도난 당하는 문제가 발생해 사업을 철수 했다고도 한다. 또한, 세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무인시스템이 다양한 업종과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점>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인편의점 등 무인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도 무인 편의점 등 무인시스템의 성장가능성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의 경우 판촉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품의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아울러, 무인시스템에 적합한 수출상품의 포장 개발과 소비자들이 직원의 도움없이도 손쉽게 제품명, 기능,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개선 등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1. Weeklytrade(<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33936>)
2. http://www.sohu.com/a/153872118_467791
3. Youth (http://news.youth.cn/sh/201707/t20170708_10250835.htm)